

【자료소개】

國學大學의 滿蒙語教材

—表文化 著, 『蒙古語·滿洲語教科書』—

송 강 호*

┃ 차 례 ┃

1. 序論
2. 滿蒙語教材와 著者 表文化
3. 『蒙古語·滿洲語教科書』의 序文과 內容
4. 영인 부록(만주어 부분)

1. 序論

본고에서 소개하는 滿文資料는 國學大學에서 1947년도에 간행한 『蒙古語·滿洲語教科書』로 著者는 滿洲國 大同學院 출신인 表文化이다.¹⁾ 그동안 국내의 滿洲語研究는 『漢清文鑑』, 『清語老乞大』, 『三譯總解』 등 朝鮮時代 淸學書를 중심으로 많은 성과를 축적하였다.²⁾ 滿洲語文法の 경우 박은용의 『滿洲語文語研究』(1,2)를 비롯해서 최학근, 성백인의 논저와 이기문의 滿洲語文法 논고 등이 있는데, 이들 이전의 滿洲語文法書로는 알려진 것이 없었다.³⁾ 그런데 근래 확인한 바에 의하면 國學大學 國學研究會에서 광복 후인

* 滿文史料研究

1) 본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것은 韓國古書研究會 노영식 회원을 통해서 同會의 박세록 이사 소장본 가운데 滿蒙語 관련 도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귀중한 자료를 소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2) 국내의 만주어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고통호, 2011, 『韓國의 滿洲語 研究 現況과 課題』, 『만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참고.

1947년 滿蒙語教材를 발간한 사실이 밝혀졌다. 비록 소박한 형태의 문법서라서 품사별 구분이나 문법 설명과 같은 구체적인 분석은 없으나 한국에서 간행된 근대식 滿洲語教材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 학계에서 滿文史料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⁴⁾ 국내의 滿洲語文法書 편찬 및 滿洲學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서를 소개한다.

2. 滿蒙語教材와 著者 表文化

國學大學의 뿌리는 1929년 지금의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던 普明義塾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29년 鄭鳳鉉이 인수하여 1933년 華山財團을 만들고 華山普通學校를 설립 운영하다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鄭鳳鉉의 장손 鄭義采와 그의 형제의 재산 기부로 國學專門學校 설립 인가를 받았다.⁵⁾ 檀紀 4280년(1947) 민족정기를 앙양하고 國學의 이념을 선양한다는 취지에서 國學大學으로 승격하였다. 國學에는 初代 이사장에 鄭義采, 初代 교장에는 鄭烈模가 취임하였고,⁶⁾ 1947년 國學大學 初代 학장에 鄭寅普, 2대 학장에 尹

3) 이기문, 「만주어문법(서론)」(한글 통권 123호, 1958)은 ‘팔세아연구’ 강좌를 위해 준비한 강의 노트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새국어생활』 제19권 제3호(2009년 가을) 참고 ; 이밖에 전재호, 「만주어첫걸음」, 유인본(1964)에 대한 소개도 보인다.

4) 최근 우리 학계의 滿洲語學習과 滿文史料 활용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김동소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의 『만주어 마태오 복음 연구』(지식과교양사) 작업과 고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만주학 총서의 일환으로 최동권, 김양진, 신상현, 황국정, 이효윤, 김경나, 문현수, A.뤼시코프 등에 의해 『만주 팔기 증수의 일기』(박문사, 2012) 등이 간행되었다.

5) 인권환, 2012, 「고대 역사 속의 우석대와 국학대」, 『고대유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26~132쪽 ; 『友石大學要覽』, 우석대학교, 1967~1970.

6) 崔起榮, 2003, 「白水 鄭烈模의 생애와 어문민족주의」,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5집(2003, 여름), 한국근현대사학회 ; 유목상, 1993, 「백수 정열모 선생」, 『(조선어학회수단 50돌 기념 글모이)얼음장 밑에도 물은 흘러』, 한글학회, 201쪽 ; 『大宗教重光六十年史』 鄭烈模 條에는 丙戌(1946) 2월 15일에 ‘國學大學 創設學長으로서 1年間 勤務하였다’고도 하였는데, 이는 國學專門學校 시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琦燮이 부임하였다. 國學大學의 初代 학장에 취임한 鄭寅普⁷⁾는 民俗學⁸⁾ 강의를 개설하는 등 國學의 진흥에 기여하였으나 훗날 경영난으로 1966년 友石學園에 병합되어 종합대인 友石大學으로 개편되었다. 友石大學 역시 그 후 高麗大에 병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⁹⁾

본서의 著者인 表文化는 1908년 10월 18일생으로 本籍은 慶南 密陽이며, 당시 住所는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35-45번지이다. 學歷은 日本 大阪外專專門을 졸업하고, 滿洲國 大同學院을 졸업하였다. 經歷으로는 高等文官 行政科에 합격, 日本 姫路高校 教授, 東京市 主事 및 國學大, 中央女大, 釜山水產大, 서울文理大 教授, 國立公務員訓練院 學監, 우랄알타이言語學會 理事長, 大韓民國建國十年誌 執筆委員 등을 역임하였다.¹⁰⁾ 저서로는 『經濟地理學概論』, 『알타이言語學』, 『政治地理學概要』, 『朝鮮地政學概論』, 『朝鮮國防地政論』, 『中國語公式解說』, 『韓國水產經濟論』 등이 있다.¹¹⁾

3. 『蒙古語·滿洲語教科書』의 序文과 內容

본서의 書名과 刊記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다만 본서의 뒷장 표지에 이전 소장자의 것으로 보이는 몽고어표기, 영문서명 및 1947. 4. 12이라는

-
- 7) 近代의 國學이란 韓國學을 진흥함으로써 한국의 전통과 정신을 고취시키려고 한 것으로 이 같은 역할에 기여한 이들로는 朴殷植, 張志淵, 申采浩, 鄭寅普 등이 있으며, 특히 鄭寅普의 경우 國學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 8) 國學大學 民俗學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로 임동권과 무속의 김대곤이 있다.
- 9) 인권환, 2012, 앞의 책, 126~132쪽. 2012년 5월 23일 고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만주학센터 설립기념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성백인 서울대 언어학과 명예교수의 축사가 있었다.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설립은 國學大學 滿蒙語 講座와도 맥이 닿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김민수, 『팔세아(八歲兒) 해제』(『한글』 통권 118호)를 보면 “고려(高麗)대학교 문리과대학 국문학회 회보 「국문학」 제1집 부록으로 이 「팔세아」를 영인(影印) 수록한 것을 지극히 기쁨으로 생각하여 마치 않는다.(1955. 7. 12)”라는 언급도 당시 사정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 10) 대한민국건국10년지간행회, 1956, 『大韓民國建國十年誌』.
- 11) 表文化, 1955, 『政治地理學概要』, 高麗文化史 참고. 그의 글 가운데 언어학적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朝鮮語源에 관한 一考』, 『자유세계』(4), 흥문사(1953)를 참고할 수 있다.

연월일 등이 보인다.¹²⁾

書名：『蒙古語・滿洲語教科書』

著者：表文化

發行年度：檀紀 4280年(1947)

發行處：國學大學國學研究會

序文에는 편찬 목적이 나오는데, 教材가 學校教科書이지만 일반 학습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알타이어 계통에 속하는 한국어와의 비교언어학 측면에서 滿蒙語가 필요하고, 古代史研究에도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表文化는 “今番 國學에서 解族 以後 滿蒙語學의 講座를 設置한 原因은 鄭寅普 先生의 創意이다.”라고 하여 滿蒙語講座 개설과 이에 따른 알타이어학 발전의 공을 鄭寅普에게 돌리고 있다.

序文

- 一. 本書는 學校 教科書用으로 編纂하였으나 一般 學習의 材料도 될 것이다.
- 一. 滿蒙語學은 稀少한 語學인 때문에 우리 實際生活에는 必要性을 느끼지 않으나 朝鮮語가 「알타이」語族의 一部分을 構成하는 以上 比較言語學에 있어서 滿蒙語 學習이 가장 重大한 地位에 있다
- 一. 朝鮮人은 原來 滿蒙地方에서 南下한 民族인 故로 朝鮮말의 語原은 滿蒙語에 一致한 點이 許多하다. 朝鮮歷史研究上 就中 古代史의 徹底한 研究를 期하거든 滿蒙 京統의 語族研究없이 大成을 期할 수 없다. 過去에 있어서 史記를 記錄한 文字는 漢字이라 滿蒙語의 音韻을 漢字音으로서 飜寫한 結果 滿蒙語의 智識이 없다면 許多한 不便과 疑問이 生起 것이다.

12) 영문으로 “Sunky Kim”이라고 한 것을 보면 무돌 김선기 선생으로 판단된다. 무돌 선생은 서울대 언어학과 성백인 교수(만주어 전공)의 스승이기도 하다. 필자 역시 성백인 선생으로부터 만주어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본서를 소개하게 되어 낯다른 인연을 느끼게 된다.

一. 今番 國學에서 解族 以後 滿蒙語學의 講座를 設置한 原因은 鄭寅普 先生의 創意이다. 朝鮮 將來에 있어서 朝鮮歷史 朝鮮語原 「알타이」 語族研究가 한거름 進步한다면 이는 鄭 先生의 德澤일 것이다.

檀紀 四二八〇年 三月 日 編者 識.

본서를 살펴보면 제1편 蒙古語, 제2편 滿洲語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분량은 페이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蒙古語 부분이 滿洲語에 비해 많은 분량을 점하고 있다.

滿蒙語教科書 目次

第一篇 蒙古語-1頁

第一章 母音-1頁

第二章 簡單한 基本語-5頁

第三章 簡單한 單語-9頁

第四章 簡單한 散文-15頁

第五章 會話-19頁

第六章 이야기-66頁

第七章 時文-98頁

第二篇 滿洲語-117頁

第一章 母音-117頁

第二章 monggo i an kooli-121頁

이상에서 序文과 目次를 살펴보았는데, 滿洲語 부분의 본문 구성을 보면 「第二篇 滿洲語」에 第1章과 第2章으로 나누어져 있다. 第1章은 發音, 基本數 및 簡單한 單語를 열거하였고, 第2章은 讀解를 할 수 있도록 문장을 예시하였다. 이들의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第二篇 滿洲語

第一章

- (1) 母音 a e i o u ū
- (2) 子音 n k g h b p s ʃ t d l m c j y r f w ng
- (3) 特定文字 k'a g'a h'a dz ts ts' ʒ sy c'y jy
- (4) 母音綴字表(語頭, 語中, 語尾) * 도표 생략
- (5) 子音綴字表(語頭, 語中, 語尾) * 도표 생략

基本數

emu / juwe / ilan / duin / sunja / ninggun / nadan / jakūn /
uyun / juwan (이하 생략)

簡單한 單語

niyalma / morin / ihan / ulgiyan / honin / indahūn / coko /
ama / eme / ahūn / ahūn deo / eyun / non / bithe /
hergen / nirugan / monggo / manju / solho /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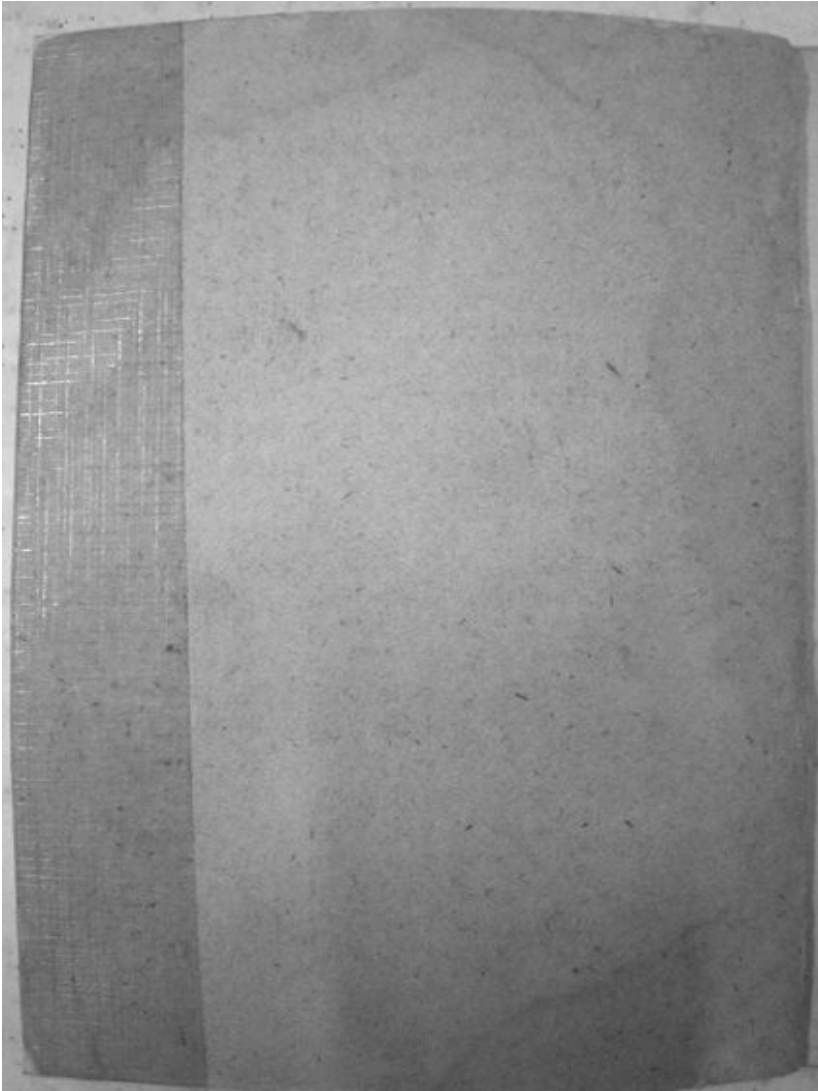
第二章

- (1) monggo i an kooli
蒙古의 風俗
(본문 생략)
- (2) encu demun be ʃakalabufi jingkini tacin be wesihulerengge
異端을 橫擊하고 바른 학문을 尊待하는 것
(본문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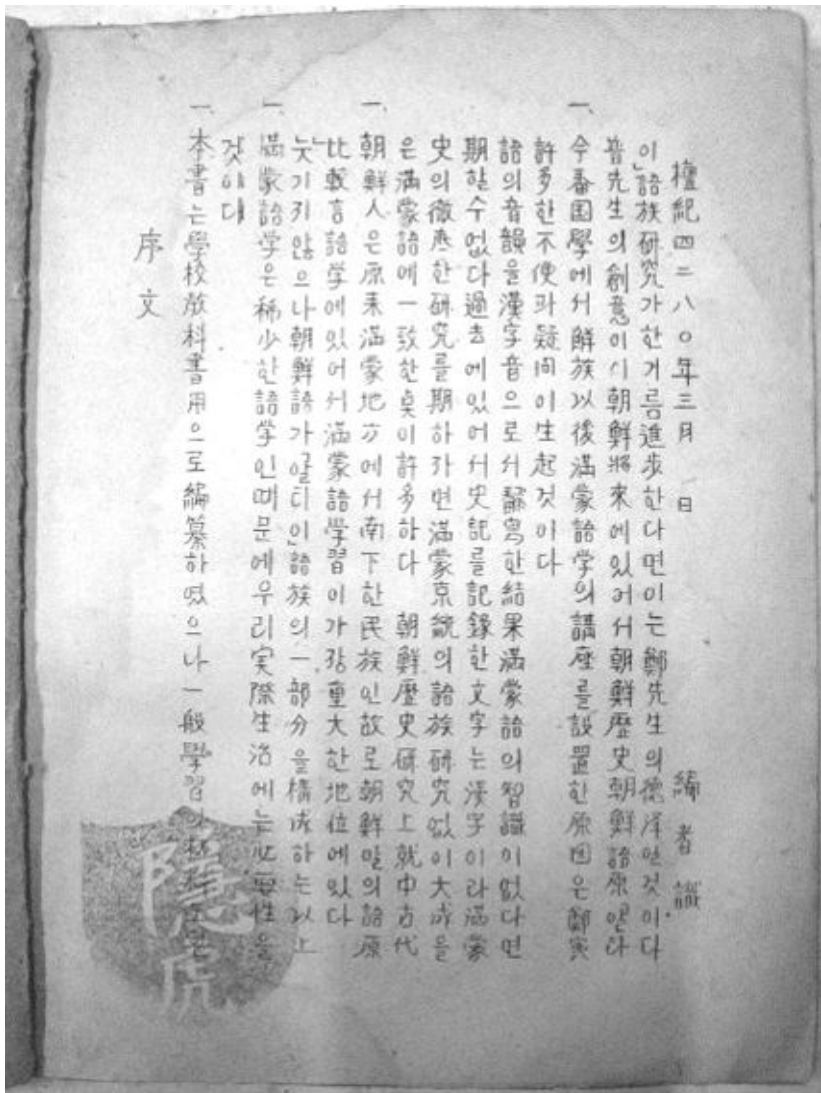
4. 영인 부록(만주어 부분)



〈그림 1〉 앞장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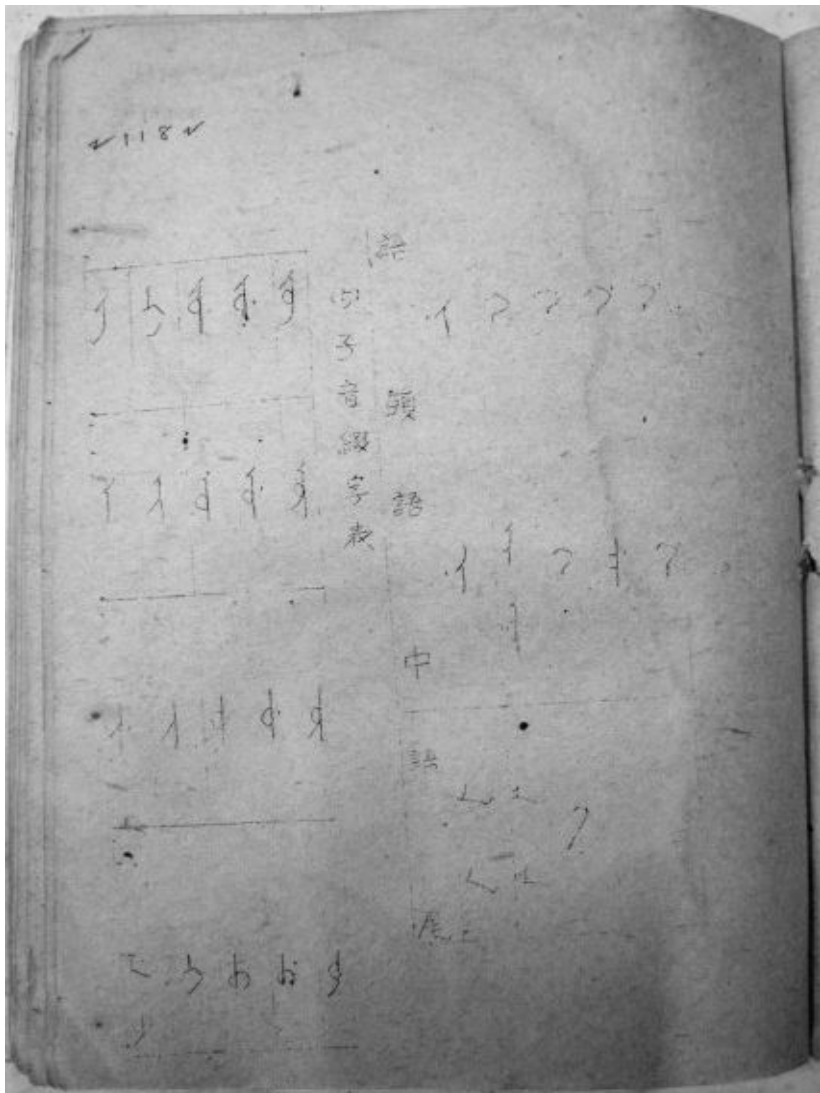
〈그림 2〉 앞장 속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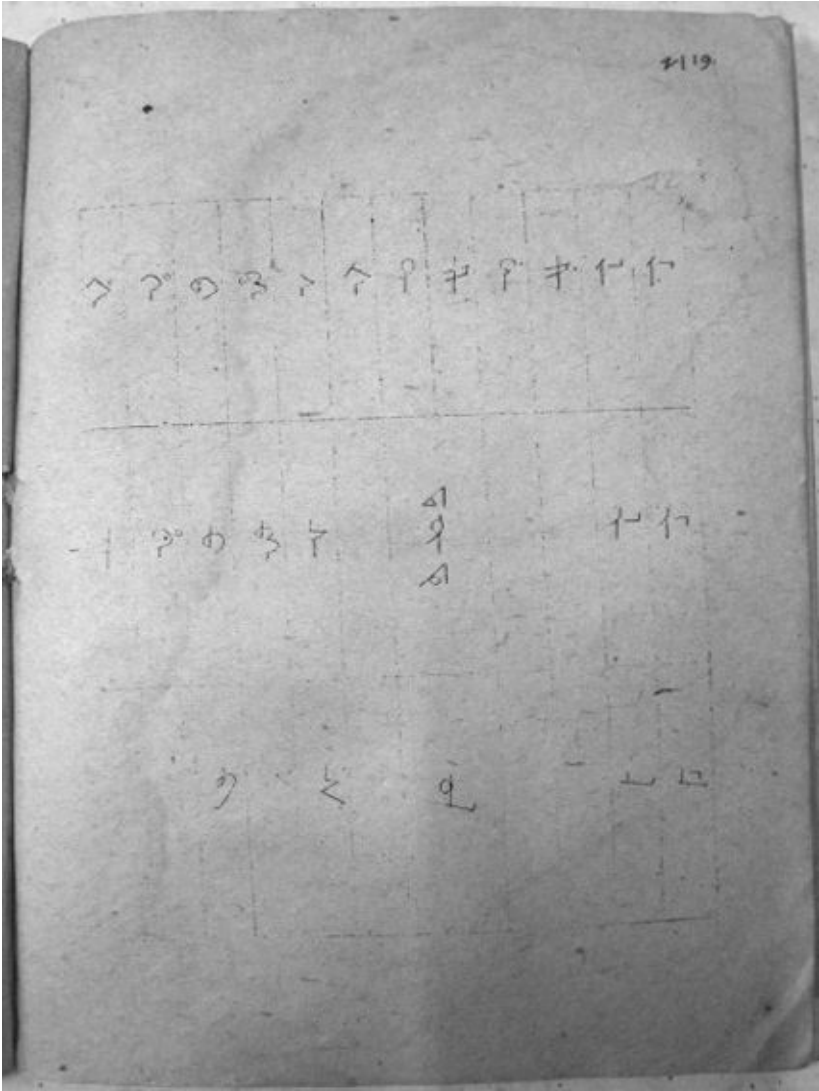
〈그림 3〉 序文

滿蒙語 教科書 目次	第二章	母音	一頁
	第一章	母音	一頁
	第二篇 滿洲語		二二頁
	第七章 時文語		二七頁
	第六章 이 하 기		二九頁
	第五章 會話		六六頁
	第四章 簡單한散文		八九頁
	第三章 簡單한單語		九五頁
	第二章 簡單한單語		一五頁
	第一章 母音		一九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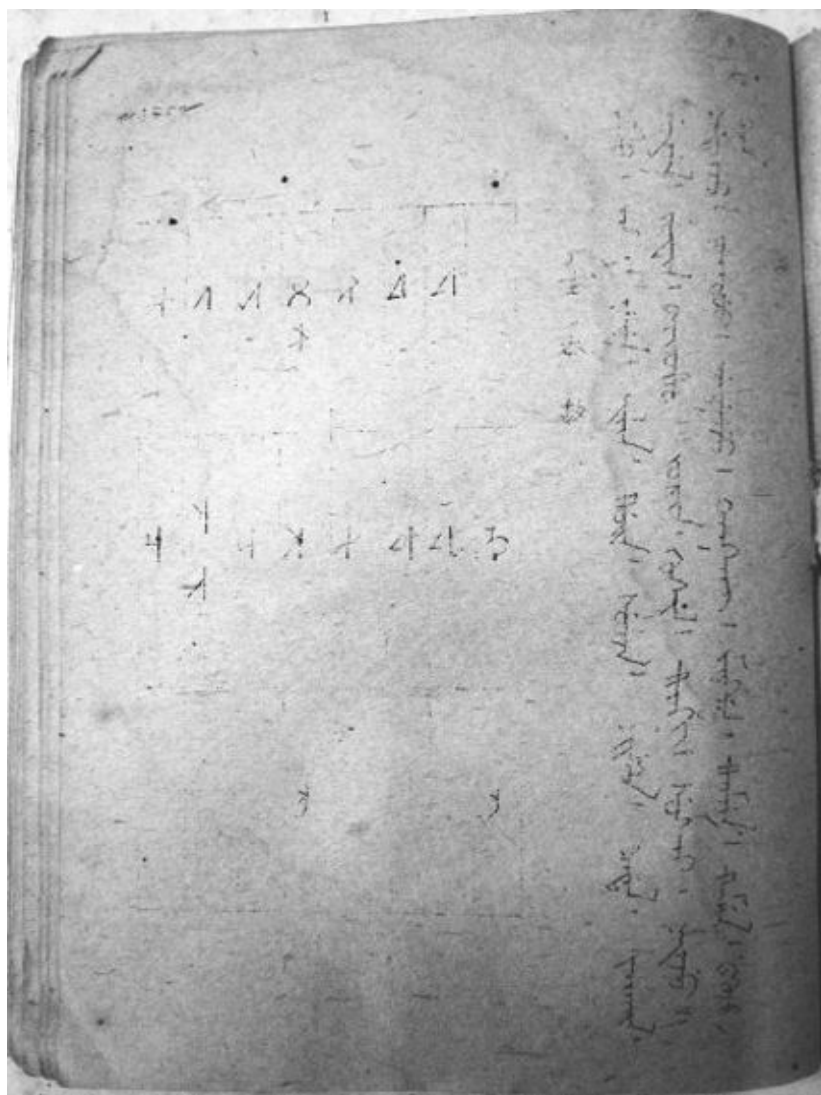
〈그림 4〉 目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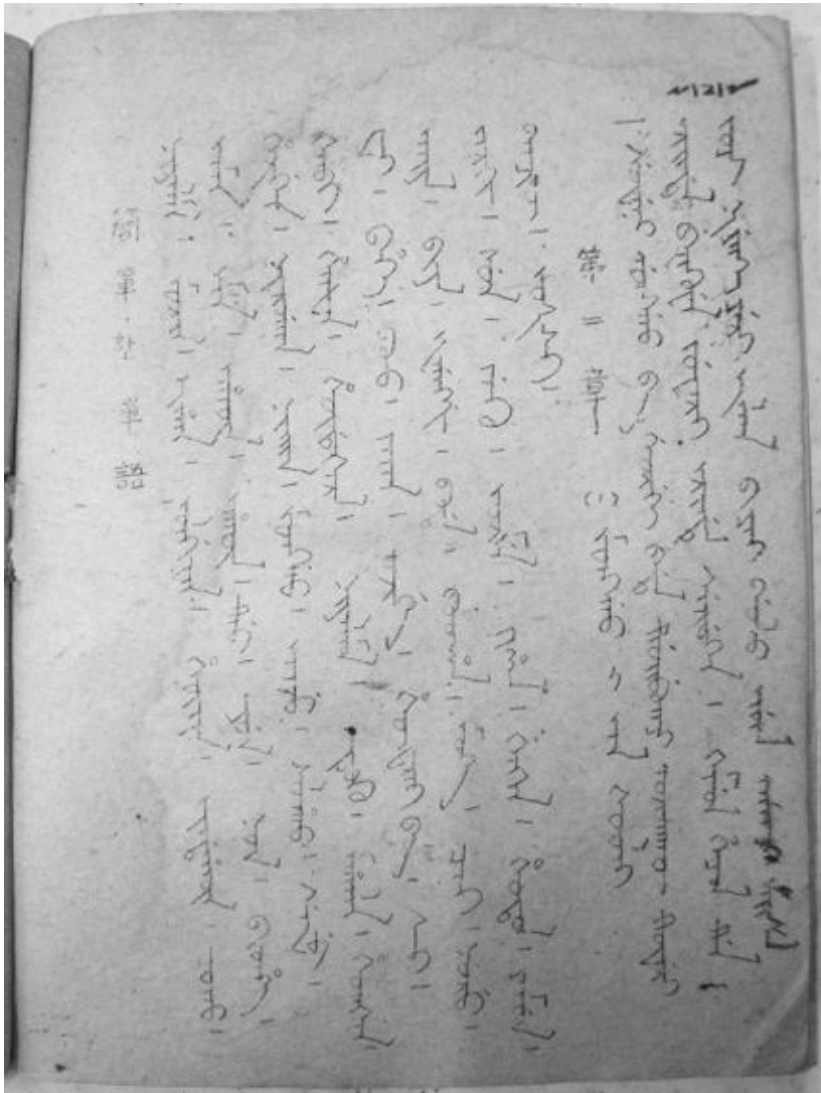
〈그림 6〉 만주어 118쪽



〈그림 7〉 만주어 1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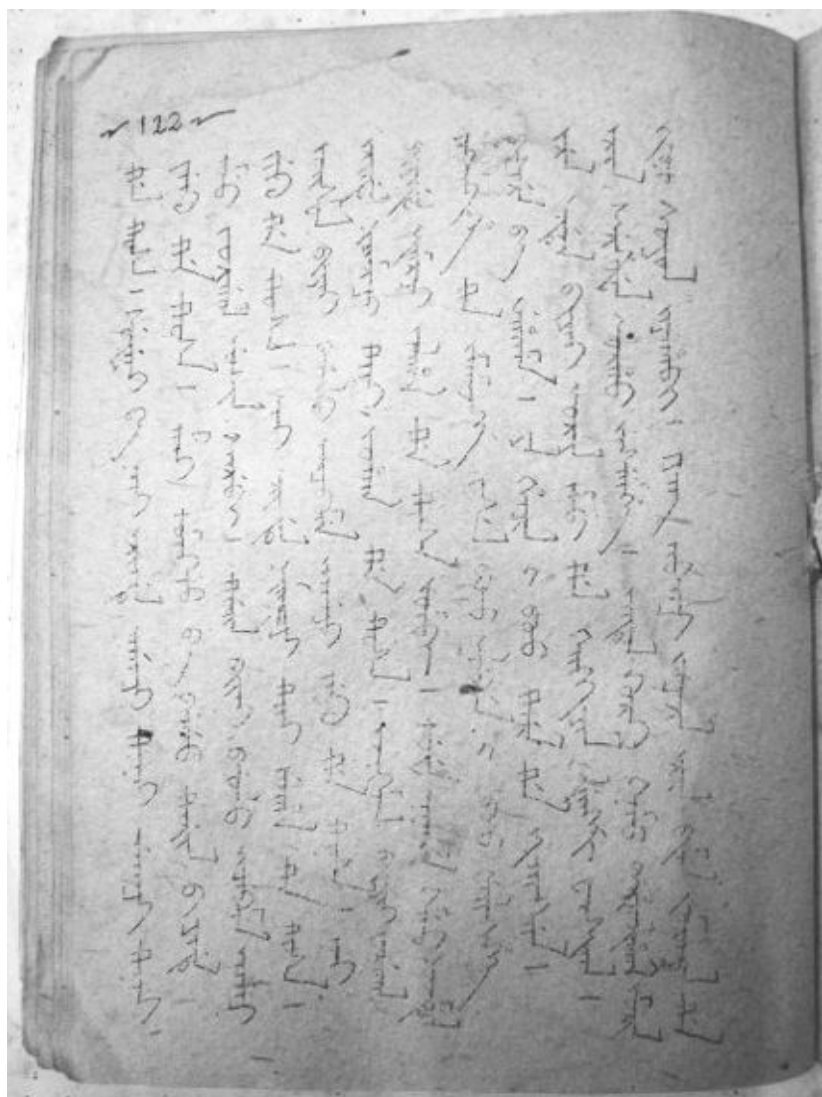


〈그림 8〉 만주어 1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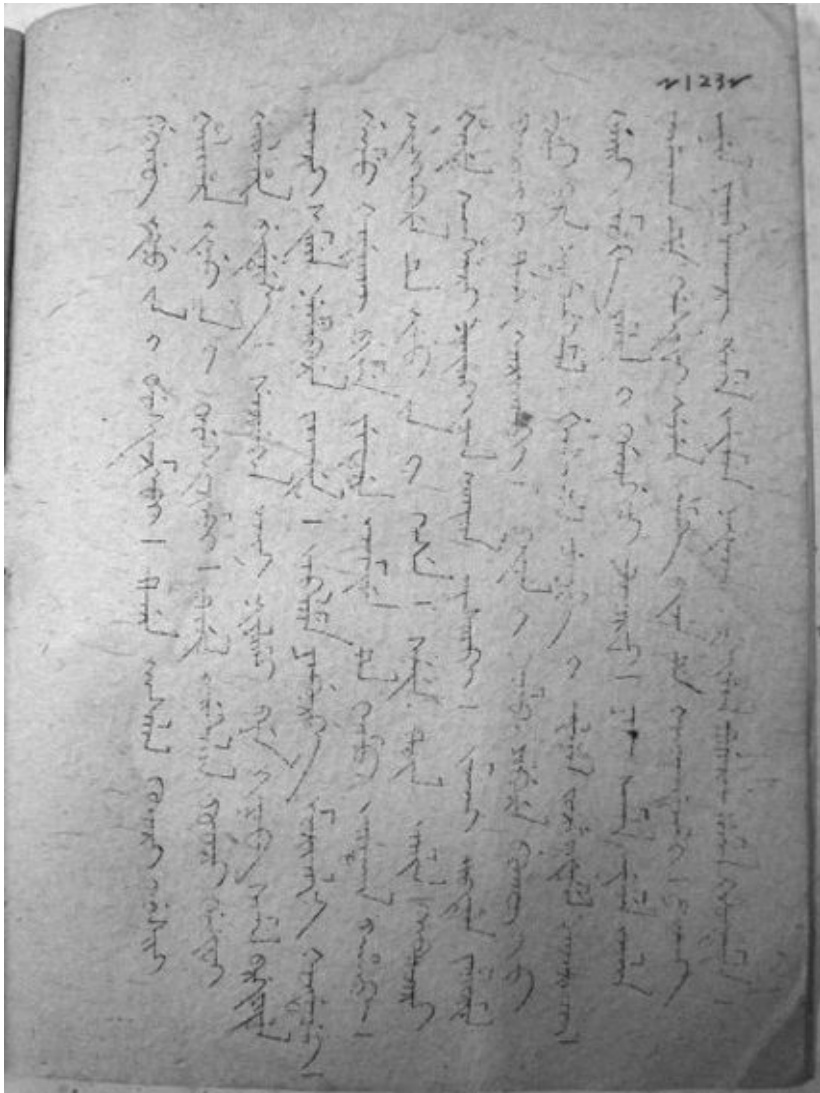


〈그림 9〉 만주어 1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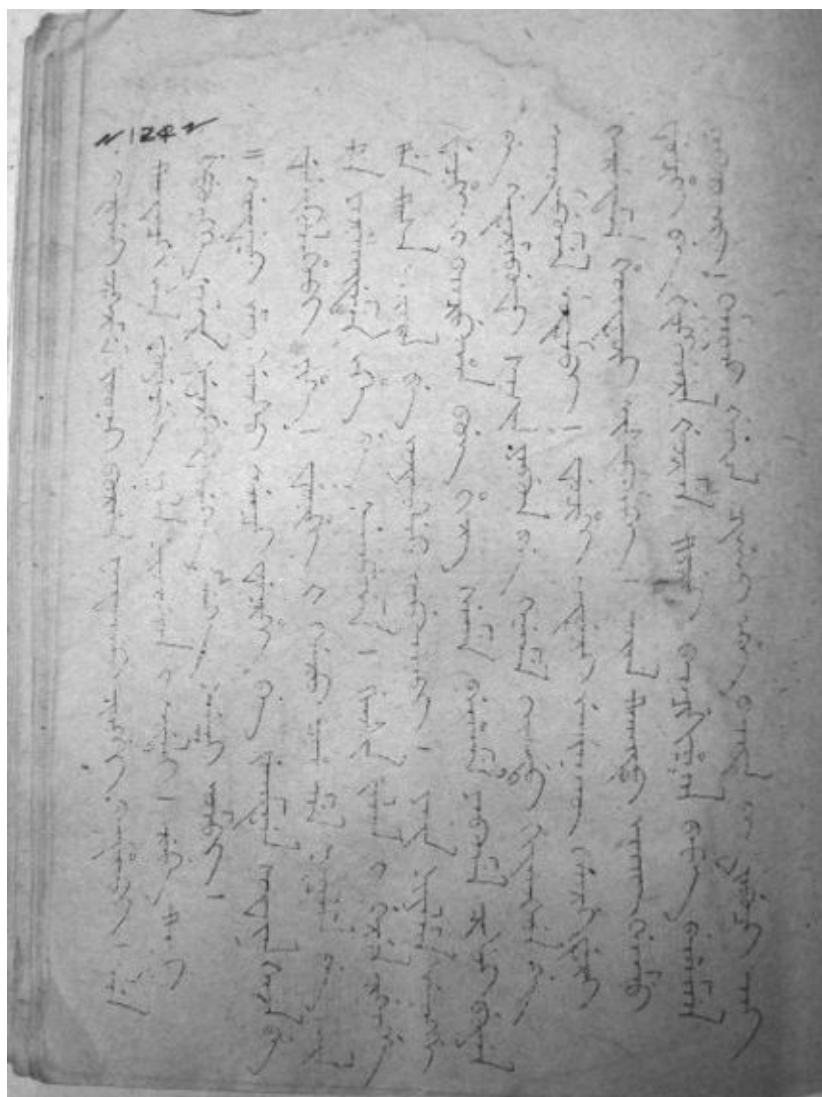
第二章 (1) monggo i an koo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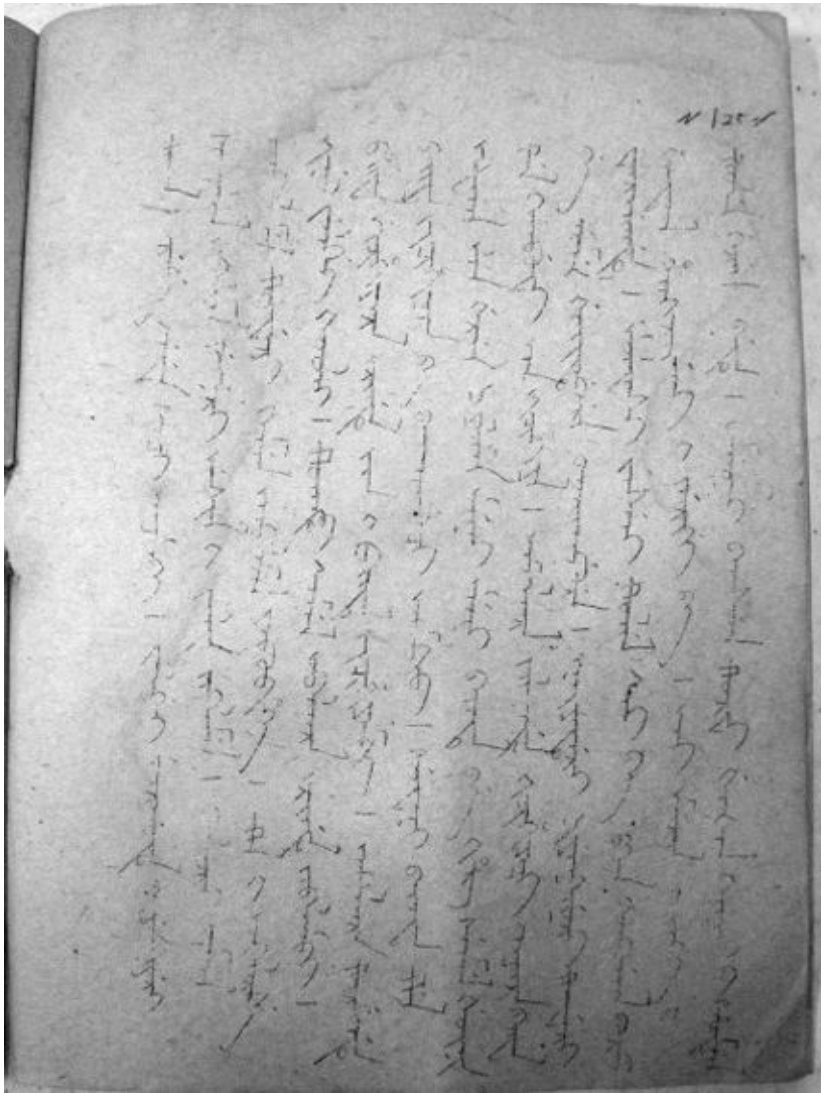
〈그림 10〉 만주어 1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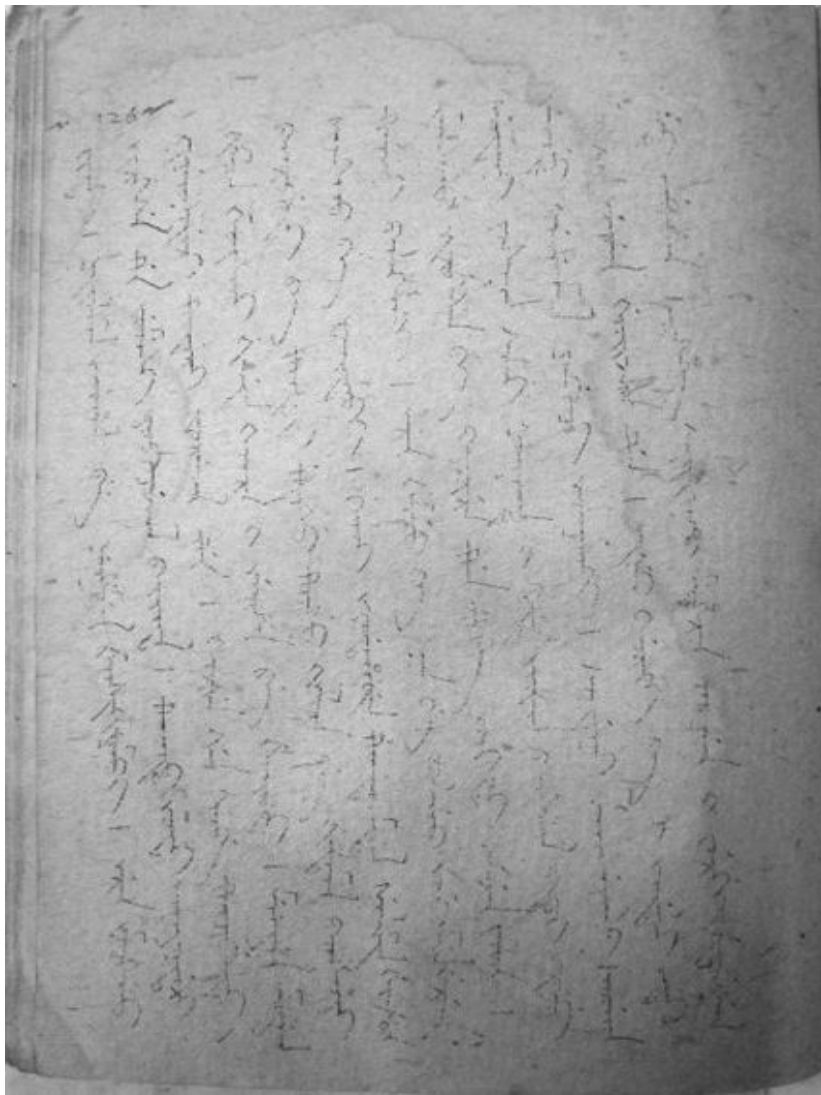
〈그림 11〉 만주어 1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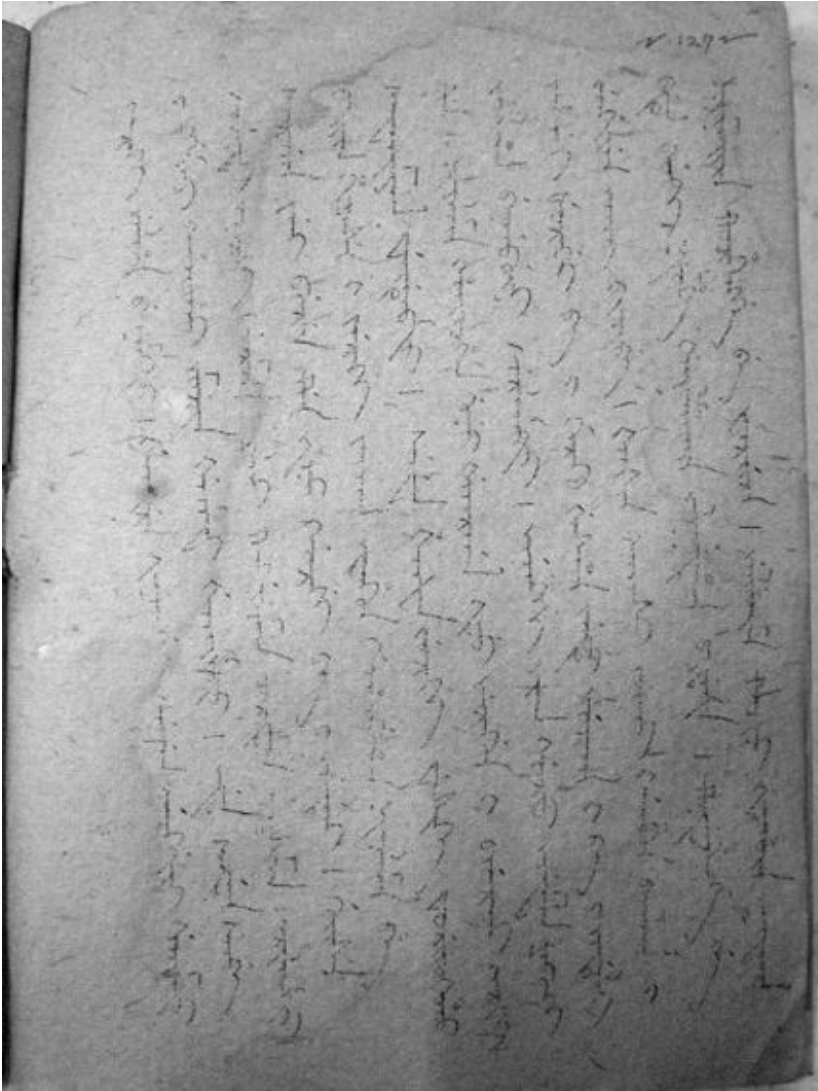
〈그림 12〉 만주어 1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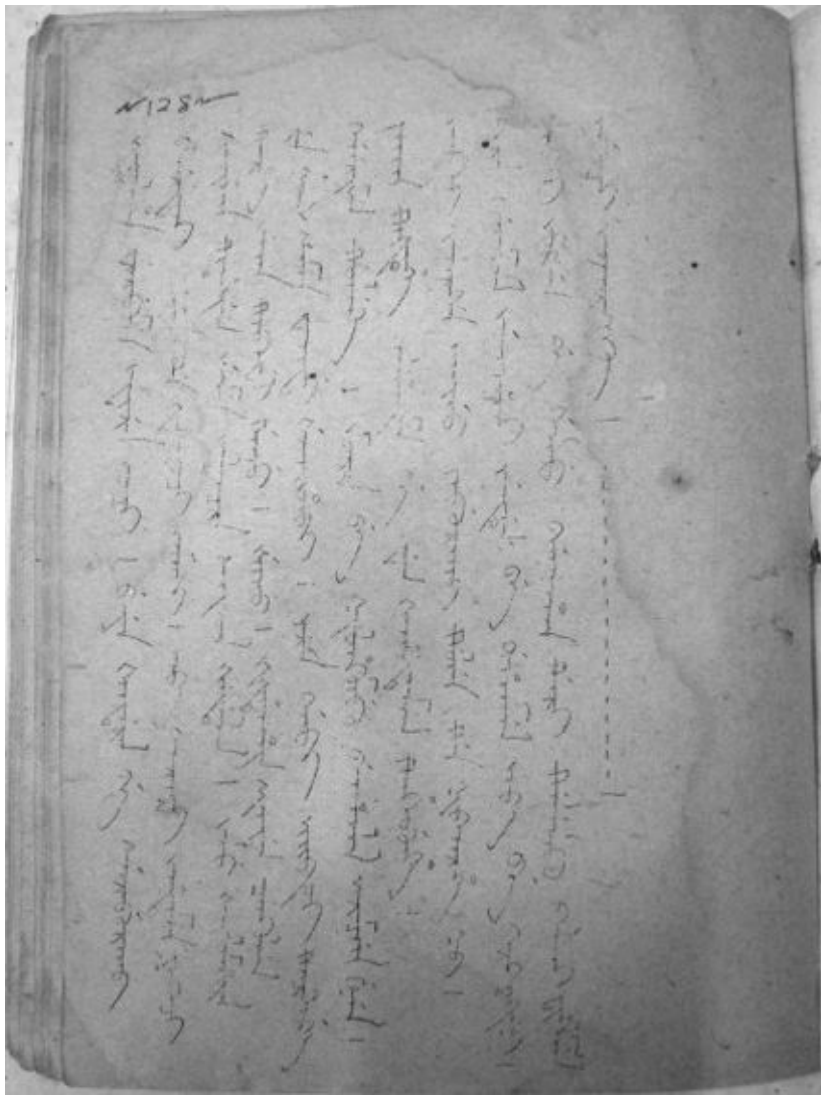
〈그림 13〉 만주어 1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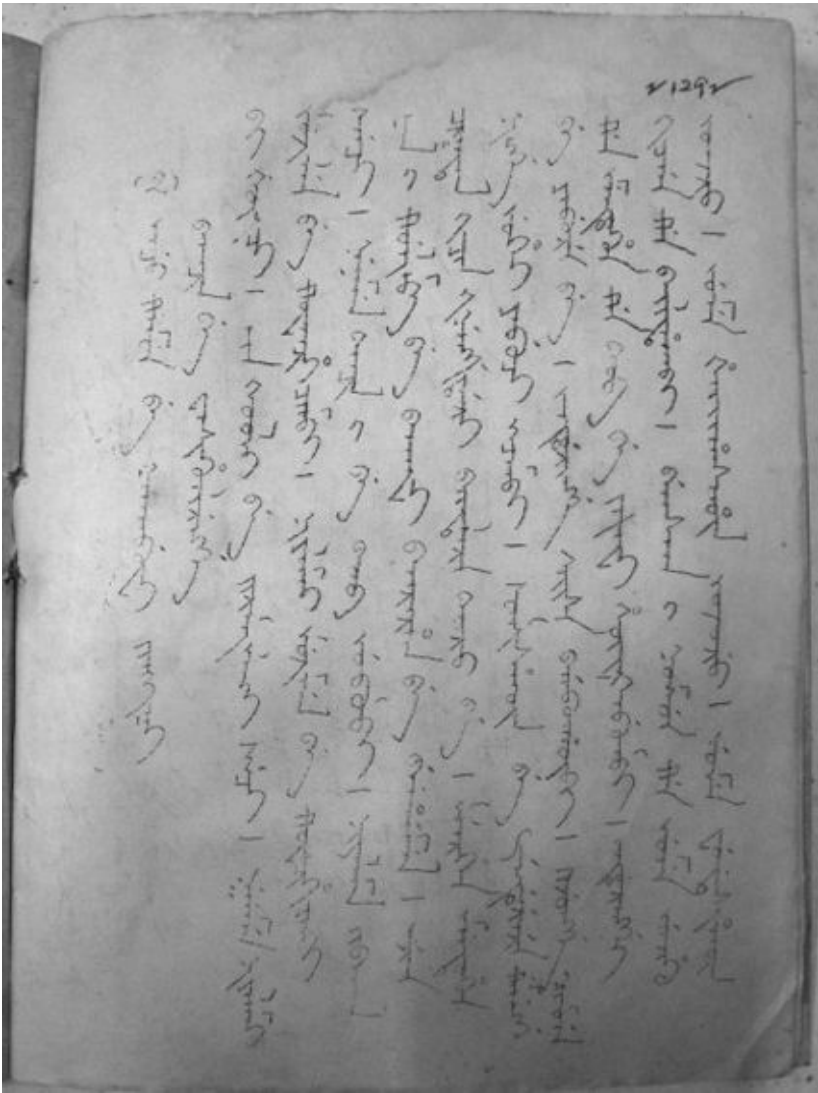
〈그림 14〉 만주어 126쪽



〈그림 15〉 만주어 1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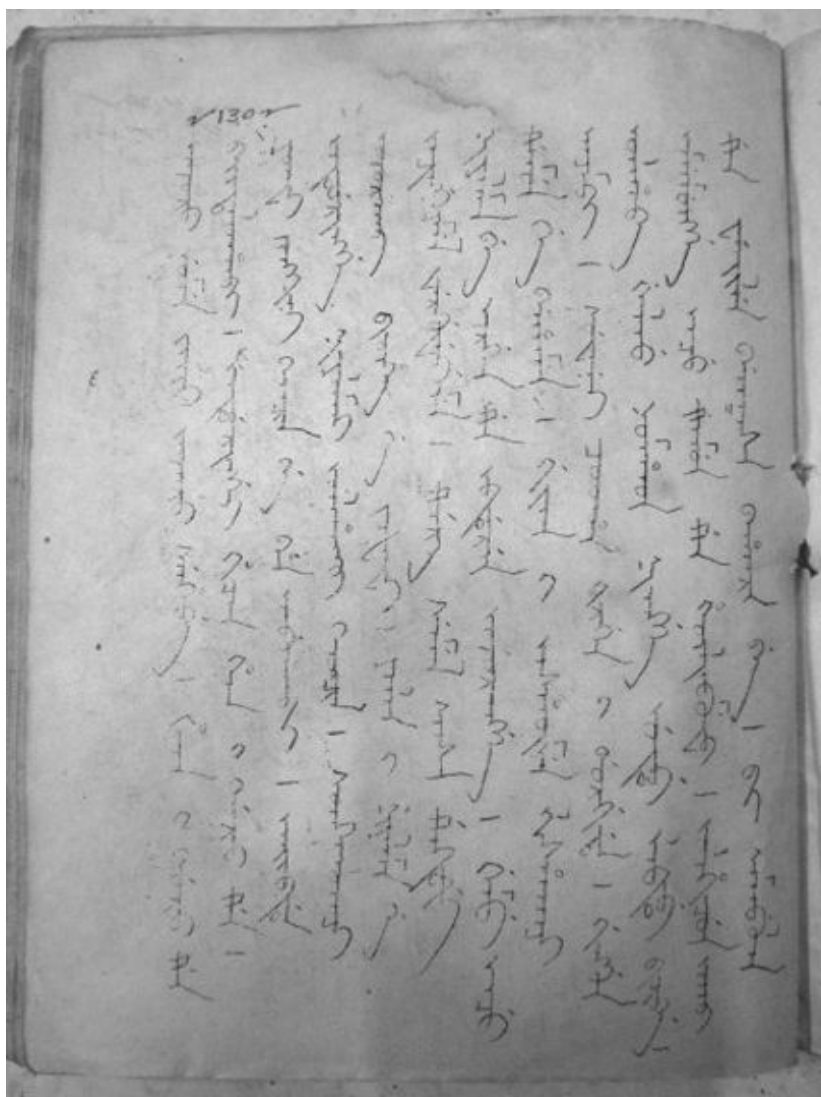


〈그림 16〉 만주어 1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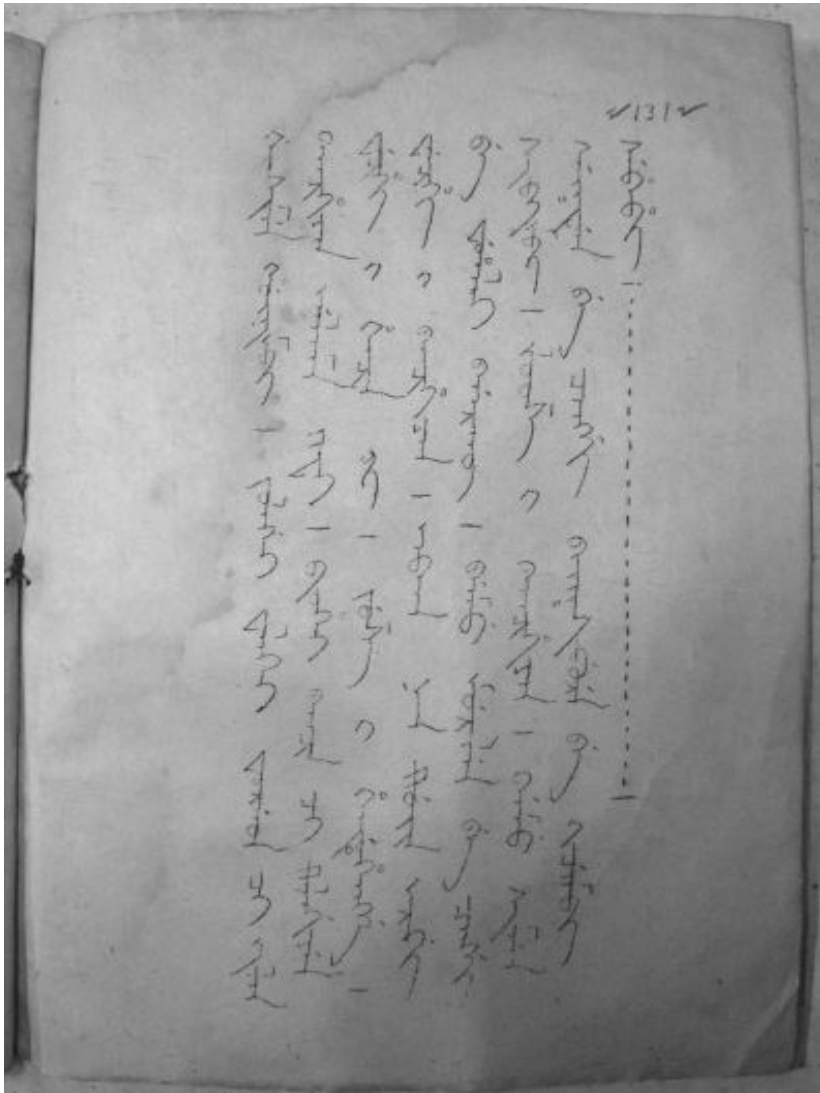


〈그림 17〉 만주어 129쪽

(2) emu demun be šakalabufi
jingkini tacin be wesihulereng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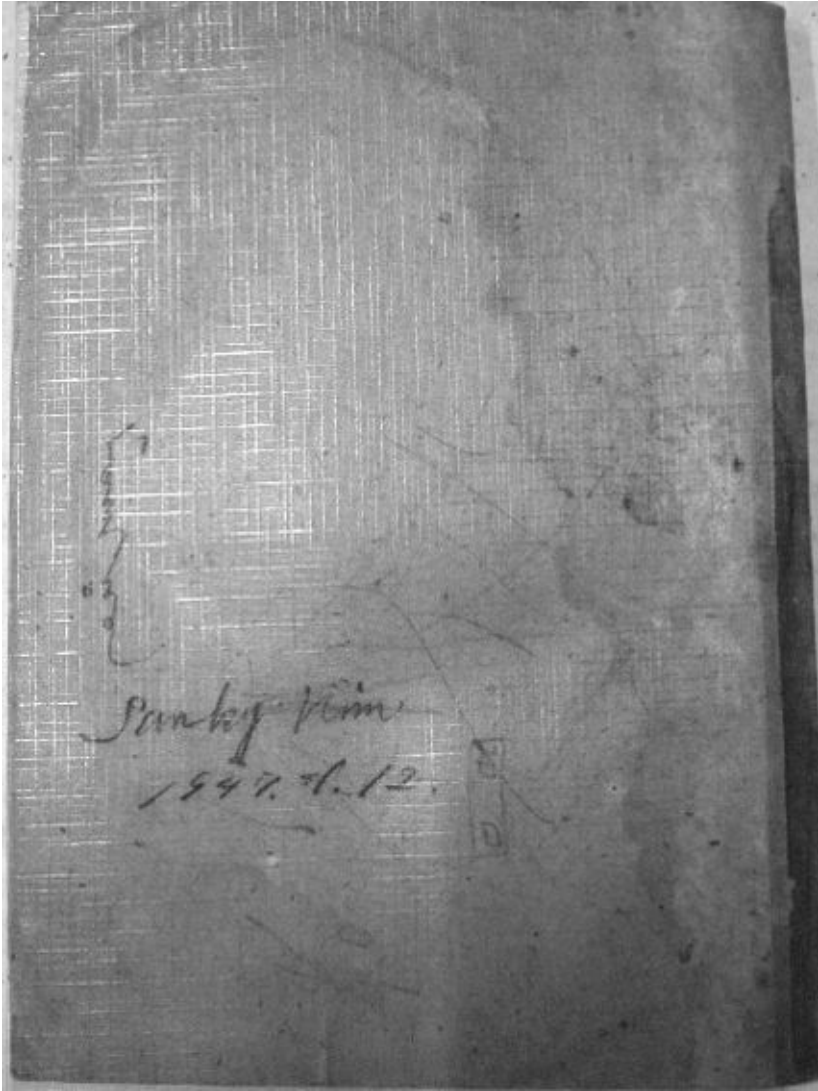
〈그림 18〉 만주어 130쪽



〈그림 19〉 만주어 131쪽
본문 마지막



〈그림 20〉 뒷장 속표지



〈그림 21〉 뒷장 표지

www.kci.go.kr

투고일 : 2012년 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2년 5월 31일